

성종사, 대만 최대 범종(33톤) 제작 화제

대만 명선사 범종, 2012년 대만 불광산사 범종 제작 이은 신기록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범종 제작업체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33톤 범종을 제작해 화제다. 2012년 대만 불광산사의 대만 최대 범종 수주에 이어 새로운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성종사 범종은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톤(8800판)으로 대만 타이완의 사찰 명선사(明善寺)로부터 2013년 주문받은 것이다.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불광산사 범종 25.5톤보다 7.5톤 무거우며 높기도 50cm나 더 크다. 명선사는 2012년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로 제작한 불광산사 범종을 보고 매료돼 성종사에 이번 범종을 주문했다.

명선사 범종 제작기간은 약 18개월로,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 역대 조사(祖師) 70명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어 천 '평화의 밤'의 '세계 평화의 종 (37.5톤)'과 '보신각 종', 'LA우정과 평화의 종' 등 700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의 주요 사찰과 지자체의 범종을 만들었다. 경북대중(영덕군), 보신각중(서울 종로), 충북 천년대중(정주),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이 있었기에 제작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번 명선사 범종은 종의 주파수를 통한 음향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 진행했다. 감리를 담당한 김석현 강원대 교수는 "명선사 범종 소리는 33톤의 중량에서 나오는 장중함과 함께 잡음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음향 강도를 결정하는 2차 진동음의 맥놀이가 매우 선명해 지금까지 제작된 30톤 이상의 초대형 범종 중 가장 소리가

대만·중국·베트남 등 해외 진출 한국전통 밀랍주조기술 활용 쾌거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56년에 설립된 성종사는 세계 최대 범종 제작업체로 국내 최대 범종인 강원도 화천 '평화의 밤'의 '세계 평화의 종 (37.5톤)'과 '보신각 종', 'LA우정과 평화의 종' 등 7000여 개에 달하는 국내외의 주요 사찰과 지자체의 범종을 만들었다. 경북대중(영덕군), 보신각중(서울 종로), 충북 천년대중(정주), 새천년 시민의 종(목포) 등이 성종사가 만든

범종이다.

성종사는 창사 초기 교회종과 학교종까지 제작했지만 2대 사장인 원광식 주철장이 3년간 수석사에 머무르며 범종을 제작한 것을 계기로 범종 전문 제작사로 전환했다. 1960년대 들어 사찰에서 종 주문이 늘며 사찰을 중심으로 범종을 제작해왔다.

성종사는 1999년부터 빠르게 성장해 2010년 태국 방콕 지사를 시작으로 베트남 중국 대만 등에도 진출했다.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불교권 국가가 주요 수출 국가다.

원광식 주철장은 2000년 대한민국 명장(名匠)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01년 주철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 범종 전문가다.

열일곱 살 때 할아버지로부터 범종 제작을 전수 받은 원 주철장은 1973년 회사를 물려받아 범종 제작의 맥을 이어왔다.

1969년 작업 도중 쇠물이 튀어 한 쪽 시력을 잃기도 한 그는 1997년 전통범종 제작 기법인 밀랍주조법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고, 2005년에는 새 밀랍주조법을 개발해 특허까지 냈다. 자신이 만든 범종 150



대만 명선사 범종을 끌어안고 있는 원광식 주철장과 아들 원철수 씨

여정을 기증해 2005년 진천군이 국내 첫 종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힘을 보탰다. 종 박물관 옆에는 2012년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세우고, 주철장 기술을 전수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식 식발은 아니지만...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서 2월 4일 열린 청년 마음출가학교 입재식에서 참가자들이 머리를 자르고 있다. 8학 9일의 기간을 감안해 식발이 아닌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2일까지 예불, 참선, 발우공양 등 수행자로서의 삶을 익히고 상원사 주지 인광 스님, 능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자현 스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의 지도 하에 다양한 불교교육을 받는다.

노덕현 기자

종립 금산중 축구부, 창단 2년만에 전국 재패



전북 유일의 불교 중립학교인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 축구부가 창단 2년 만에 전국축구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2014년도에 창단한 금산중학교 축구부는 창단 1년만인 올해 첫 대회인 금석배 전국축구대회 저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 37회 대한중주협회장배 전국대회 결승에서 거제 동부중학교와 연장 할투 끝에 3:2 짜릿한 역전우승을 차지했다. 경남 김해의 장유지역과 진영지역의 2곳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금산중학교는 예선경기에서 결승까지 치른 6경기 동안 29골을 넣는 등 경기당 4.8골의 막강한 화력을 자랑했다.

3학년이 없는 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기에 임한 이날 결승전에서 금산중은

먼저 실점했지만 곧 바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는 저력을 발휘하며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경기 후 시상식에서는 금산중학교 이용국(2학년) 선수가 대회 최우수선수상, 라덕용(2학년)이 득점상, 그리고 이요셉(2학년)과 유찬형(2학년)이 각각 수비상과 페어플레이상을 받았다. 강금철 감독은 감독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영석 교장 선생님은 시상식 후 "축구부 학생들의 열의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함께 경기우원을 위해 멀리 제주도에 서부터 전국각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중학교 축구부는 축구부원들이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시찰 입춘 맞아 불교단체에 자비행



입춘을 맞은 광주지역 사람들의 나눔활동이 주목 받고 있다. 광주 비전사(주지 보혜)는 2월 4일 신도들이 모은 '자비의 쌀' 500만원을 광주전남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 중심사 주지)에 지정기탁을 했다. 이날 기탁된 기금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통해 백혈병 환우치료비에 사용된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 기금은 절 1회당 10원씩을 적립하여 500배, 1000배 기도로 모은 것이다. 자비의 쌀 기금은 매년 1회씩 어려운 환우 치료비에 쓰인다.

전달식에서 보혜 스님은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전사는 4일 입춘기도에 올린 공

양미 2000kg을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했다.

비전사는 2004년부터 '자비의 쌀' 이름으로 지금까지 총 19톤을 불교단체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금산사(주지 일명)도 2월 4일 입춘기도에서 신도들이 기부한 쌀 2000kg을 광주지역 불교단체 6곳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신도들이 모은 차와, 수건 등 생필품과 등전 등도 전달했다.

자비의 쌀을 전달받은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은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비의 쌀'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련사·다산기념관 '체험 활성화' MOU



강진 백련사와 다산기념관은 2월 3일 양 기관에서 운영 중인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측은 체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다산기념관과 백련사가 보유한 시설의 교차 사용, 체험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산기념관은 다산체험프로그램의 현

장 체험 코스로 백련사를 방문해 다도, 대웅보전그림찾기, 사찰음식체험 등을 진행해 왔다.

각 체험은 백련사 주지 일담 스님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체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다산공작관 교육에도 다도체험을 반영, 백련사와 연계해 체험을 더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광주시민 위한 클래식 산사 음악회 '눈길'

지역주민을 위한 사찰 클래식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광제사(주지 광제)는 1월 30일 마타전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임재웅 씨를 초청해 독주회를 개최했다. 비엔나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를 졸업한 임 씨는 이날 '이차이,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6개의 소나타'를 연주해 참석한 대중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광제 스님은 "봄을 맞은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회를 준비했다. 행복찬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제사는 창건 11주년을 맞은 도심사찰로 작은음악회, 전통종 제작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 天造明堂을 구求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 地造明堂을 구求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 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제(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이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비밀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송월스님의 개정정보판 드디어 출간!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미를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범수

나의 이력서며 인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득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회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6쪽 / 정가 7,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우늪,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